

사회

김종식 서구청장 무허가 건물 소유·임대

중흥동 200㎡ 벽돌건물·300㎡ 철골구조물... 아무 제재 안받아

울 재산공개 임대수입 제외 불성실 의혹도

현재 구청장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임대중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변지에 1199㎡(약 363평)의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합법적 건물은 380.15㎡(약 115평)의 단층 건물뿐이다. 나머지 200.60㎡(약 60평)에는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벽돌조 단층건물이 지어져 있다. 또 이 건물과 맞닿은 300㎡(약 90평) 가량의 공간에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철골

을 세워 지붕을 덮은 구조물을 지은 상태다. 김 청장은 이들 대지와 건물 대부분을 지난 1978년부터 지난해 사이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았다. 광주일보 취재진 확인결과 김 청장은 60평짜리 무허가 벽돌건물과 90평짜리 무허가 철골 구조물이 포함된 건물들을 각각 A종합기계 사무실·B상사 작업장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자치구의 단체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임대수입까지 챙기고 있는 셈이다.

현재 건축법은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총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 내 민간 연한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건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시 전역에 '항공 사진 촬영·관측 및 정사영상제작'을 완료, 각 자치구에 배포해 단속종이나 김 청장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어떤 일인지 최근까지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김 청장은 올해 초 재산공개에 10곳의 입양 및 대지, 4채의 건물, 2

대의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3개의 골프 회원권 등 본인 및 가족의 재산 27억 771만1000원(전년 대비 1억8477만4000원 증가)을 신고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임대 수입은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 누락될 경우 수정·보완신고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경고조치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식 서구청장 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토지와 건물을 친척이 관리하다가 최근에야 직접 관리하게 돼 미처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12일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소유 무허가 건축물(××기계)과 기존 건축물에 무단 증축된 비닐하우스 형태 철골 구조물(왼쪽)의 모습.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영광서 '문지마 폭행' 잇따라

30대 버스터미널서 종교생 3명 구타 후 짐적

목적 주민들 방관 비축

영광에서 10대 학생들이 일명 '문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10대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지 않아 비축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10분경 영광군 영광읍 영광터미널 앞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고등학생 A(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다. 이 남성은 폭행을 당한 A군이 쓰러지자 발로 마구 밟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서 "광주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저씨 한 명이 다짜고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얼굴 등에 심하게 멍이 들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이 폭행을 당하기 직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터미널 앞에서 있던 중학생 B(15)군과 C(15)군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 등은 경찰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저씨가 갑자기 다가와서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A군 등 중·고교생 3명이 남성에겐 연달아 폭행을 당했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중 단 한사람도 이를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진술을 토대로 180cm 가량의 키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던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낯선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나 취객의 '문지마 폭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또 음주운전 피의자 경찰서 자살 시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계 박모(30)씨가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건물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을 경찰관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이날 새벽 광주시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돌해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던중 화장실에 간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달 7일 새벽에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목을 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처럼 최근 광주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경찰서에 오는 모든 피의자 신병을 감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재로서는 CC(폐쇄회로)-TV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이만의 전 환경장관 친자확인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A(여·36)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시절 부처절한 일은 있었으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근북무로 등록금 해결" 헌심한 병무청

○최근 '반값 등록금'이 국민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병무청이 지난 10일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 북무로 해결하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

○병무청은 이날 오후 4시쯤 전국 9군 입대 대상자 4만6000여명에겐 "대학 등록금, 근 북무로 해결" 8·9월 입영 대상 유급지원명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복합했을 때 물가상승률로 올라간 등록금을 어떻게 갚아?" 등의 댓글을 올렸으며, 병무청 관계자는 "병소 목돈 마련 기회라는 문구로 유급지원명 제도를 홍보해왔는데,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 /연합뉴스

주말·휴일 전·남북 사고 '얼룩'

외조카 집 불 질러 2명 사망 택시-승용차 충돌 4명 사상

50대 남성이 외조카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등 주말과 휴일 전·남·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새벽 1시10분경 순창군 구림면에 사는 양모(44)씨의 집에 불이 나 김모(57)씨와 김씨의 외조카 딸 양모(13)양이 연기에 질식사했다. 김씨는 산불진화용 등진 펌프에 휘발유를 담아 외조카인 양씨의 집 바닥에 뿌리고 양씨의 가족 7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2년 전 외조카인 양씨를 폭행한 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날 새벽 1시45분경 전주시 중화산동 백제에서 근영여고 쪽으로 가던 택시(운전자 장모·60)와 효자동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달리던 폴스바켄 승용차(운전자 박모·26)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이모(26)씨와 김모(38)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여성 승객 2명이 크게 다쳤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지난 11일 밤 1시10분경에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대 정문 앞 도로에서 김모(46)씨의 택시와 또 다른 김모(36)씨의 승용차가 충돌, 동승자 박모(여·33)씨 등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이날 오전 10시20분경에는 전주시 인후동 H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H여객 소속 시내버스의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다. 버스 바닥 일부가 파열되면서 튀어오른 파편에 승객 5명이 얼굴 등을 다쳤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광주지방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2일 남쪽 관련 서류를 조작해 R&D(연구개발) 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장모(49)씨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전·현 연구원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

원을 계획적으로 속여 돈을 챙겼고, 내심 나랏돈은 눈بن 돈이라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납품업자는 연구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 연구원 3명은 2009년 9월 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업무와 짜고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을 한 것처럼 여관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중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품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급>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판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삼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유동화 자산매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포오일병원

- ▶대지 7867평 ▷건물 2510평
- ▶감정가액 126억
- ▶매매가액 80억원(협의후결정)

광주육동 공장

-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 879평
- ▶감정가액 15억7천만원
- ▶매매가액 9억5천만원(협의후결정)

광주용봉동 하이포텍스

- ▶대지 4073평
-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 ▶감정가액 516억원
- ▶매매가액 160억원(시설비별도 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 ▶대지 3025평 ▷건물 597평
- ▶감정가액 99억4천
- ▶매매가액 55억원(협의후결정)

해남 양갈밭도

-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 ▶감정가액 83억원
-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곡성서곡 공장

-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 ▶감정가액 44억3천만원
- ▶매매가액 20억원(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 ▶감정가액 136억원
- ▶매매가액 85억원(협의후결정)

※ 유동화 자산매매 전문회사 유입부동산이나 경제진흥중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매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매매전문가 무료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민시설/원룸	정리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공장/토지	김정희이사 010-8033-0114
상지 대지1100평 21억 3억1천 3억1천 3억1천	상지 대지1100평 21억 3억1천 3억1천 3억1천	상지 대지1100평 21억 3억1천 3억1천 3억1천	상지 대지1100평 21억 3억1천 3억1천 3억1천	상지 대지1100평 21억 3억1천 3억1천 3억1천	상지 대지1100평 21억 3억1천 3억1천 3억1천

아파트/빌라 명태전빌딩 010-2634-3752 주택/재개발 양촌현빌딩 010-3171-6536 군민주택 김규석이사 010-6654-8888

소재지	명칭	㎡	총층	경리사	최저가	비고	소재지	명칭	㎡	총층	경리사	최저가	비고
광안리	대평리제방	110	12/4	2억2천	1억6천	3억2천	2억2천	2억2천	2억2천	2억2천	2억2천	2억2천	2억2천

병원, 교회, 사옥, 모델,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전문가(실천)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7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문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